

## 이로에 매화도 히라미즈사시

교토를 대표하는 도자기인 교야키의 대성자, 노노무라 닌세이가 제작한 미즈사시(물그릇)입니다. 17세기 전형적인 다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1950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닌세이는 17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교토에서 활약한 도예가입니다. 세토(현재의 기후현) 등에서 수련을 한 후, 교토에서 소와류 다도의 창시자인 가나모리 소와(1584~1656)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가마를 구축했습니다. 가나모리 소와의 지도 하에서 닌세이의 작품 스타일은 소와의 다도 철학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조정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즈사시는 차를 끓이는 가마에 물을 보충하거나 찻잔을 행구는 데 사용하는 차도구입니다. 주취자인 주인이 직접 차도구를 다실로 가져오는 형식의 다회(차모임)에서는 보통 가장 먼저 미즈사시를 들여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미즈사시는 크기가 크고, 물을 채우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미리 다실에 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미즈사시는 지름이 23.4cm 나 됩니다.

이 작품의 매화나무는 ‘이로에’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에란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색유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저온에서 재벌구이하여 두 겹의 유약을 정착시키는 기법입니다. 안료는 굵는 과정에서 색이 변하거나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예가는 의도한 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소재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미즈사시에서 볼 수 있듯이 닌세이는 다채로운 색상의 문양이 그려진 바탕부분에 약간 노란빛이 도는 흰색 유약을 두껍게 덧바르는 기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빨강, 검정, 초록색의 유약으로 매화나무와 꽃을 그렸으며, 곳곳에 금가루 등을 이용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몇몇 매화꽃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는 은가루 등을 사용해 약간 광택이 있는 회색으로 완성했습니다. 줄기와 가지를 덮은 지의류를 연한 황록색으로 그려낸 고목 표현도 매우 훌륭합니다.

닌세이는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의 구타니야키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번주였던 마에다 가문과 그 가신들은 닌세이의 작품 스타일을 찬탄하며 많은 작품을 소장했습니다.